

경륜이 빛어낸 '대투수' 존재감...선발 중심축 '증명'

KIA 양현종, 삼성전 5%이닝 1실점 '패전에도 빛난 투구'

변화구 비중 '↑'...구위 대신 구종 배합 변화 '베테랑의 힘' 타이밍 싸움 압도,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 회복...반등 희망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투수' 양현종이 호투 속에 반등의 신호를 알렸다.

양현종은 지난 7일 광주 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2피안타 2볼넷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팀은 패하며 시즌 첫 승은 불발됐지만, 투구 내용만 놓고 보면 분명한 회복세였다.

지난 1일 LG전(4이닝 3피안타 4볼넷 4탈삼진 3실점)과 비교해도 안정감이 확연히 달라졌고, 평균자책점 (ERA)은 3.72로 낮췄다.

이날 삼진 3개를 보태며 KBO리그 최초 통산 2천200탈삼진 고지에도 8개만을 남겨뒀다.

직구 (140km대)를 중심으로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를 고르게 섞었다. 총외구 중 스트라이크는 57개 (62%). 완급 조절로 타자와의 승부를 풀어나갔다.

특히 구종 배합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지난 LG전에서는 직구 (46구)와 슬라이더 (20구) 비중이 높았던 반면, 이날은 체인지업을 26%까지 끌어올리고 커브도 13개를 섞으며 구종 폭을 넓혔다.

슬라이더 비중은 줄이고 변화구 활용을 늘리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았다. 좌타자 라인업 상대로 체인지업 활용을 늘리며 승부 패턴에 변화를 줬다. 출발은 흔들렸다.

1회 1사 후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다. 2회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이닝을 정리했고, 3회는 삼자범퇴, 4회 볼넷 1개를 내줬지만 추가



KIA 양현종이 지난 7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점 없이 막아냈고, 5회는 세 타자를 모두 뜬 공으로 처리했다.

6회 들어 첫 위기를 맞았다.

2루타와 볼넷으로 2사 1,2루에 몰렸고, 마운드를 넘겨줬다.

볼넷 김범수가 중견수 플라이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며 승계주자 실점은 막았다.

1회와 6회를 빼면 전체적인 투구는 균형을 유지했다.

양현종은 경기 초중반 주도권을 KIA 쪽으로 끌어왔고, 승리 투수 요건도 갖췄다.

다음 등판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남겼다.

그는 2025시즌 에이징 커브 우려 속에 구위 저하를 드러냈다. 11시즌 연속 170이닝 기록이 끊겼고, 평균자책점도 5점대까지 치솟았다.

올 시즌 첫 등판 역시 패전으로 시작하며 불안이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투구는 분명한 변화였다.

구위로 압도하지 않아도, 경기 운영으로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양현종은 여전히 KIA 선발진의 축이다.

이 축이 다시 단단해진다면, 팀의 반등도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

/주흥철 기자

지역 체육 활력·도민 화합 선도... '꿈을 모아 구레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

'도민 스포츠 대축제' 전남체전, 구례서 개막

10-14일, 23개 종목 열전



전남도민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65회 전남체육대회'가 '꿈을 모아 구레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0-14일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2개 시·군에서 총 7천137명(선수 4천581명, 임원 2천55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축구 등 23개 종목에서 시·군간 열띤 순위경쟁을 펼친다.

2012년 제51회 대회 이후 구례군에서 1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과 임원을 비롯해 관람객 약 1만5천 명 등 총 2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체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화합을 이끄는 스포츠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회식은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구례공설 운동장에서 열리며, 식전행사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함께



전남도민 최대 스포츠축제인 제65회 전남체육대회가 내일부터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다. <전남체육회 제공>

즐길 수 있는 각종 홍보부스와 푸드트럭,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본격 개막에 앞서 일부 종목이 사전경기로 열려 대회 열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농구는 신안군이 1위, 여수시가 2위, 순천시와 완도군이 공동 3위를 차지했고, 태권도는 여

수시가 1위, 고흥군이 2위, 목포시가 3위에 자리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14년 만에 구례군에서 다시 열리는 제65회 전남체육대회가 전남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구례 전남장애인체전 "준비는 끝났다"

"역대 최고 성공 개최 이루자"...대회 준비 최종 점검회의서 결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8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제34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21개 경기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대회 준비 전반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구례군 전남체전 TF팀이 개최식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과 종합 안전 대책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대진 추첨을 진행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 통합을 앞두고 열리는 대회로 전남 22개 시·군이 참가하는 전남 단독 장애인체육대회로서는 마지막 대회라 될 가능성도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구례군과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야외 무대를 활용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곽춘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단과 가족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구례군의 따뜻한 환영과 열정적인 준비가 이번 대회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4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는 '자연의 땅 구례에서 펼쳐질 희망의 꿈'이라는 구호 아래 오는 22-24일 구례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 5천여 명이 참가해 21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체육회, 전국 최초 '국군 전투 체력 과학화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 과학으로 强軍 육성...민·군 협력 선도모델 구축

광주시체육회가 전국 최초로 스포츠과학을 활용한 '국군 전투 체력 과학화 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강군 육성'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스포츠과학 역량을 군 전투체력 향상에 접목한 민·군 협력형 선도 모델로 추진돼 의미가 크다.

광주시체육회는 2023년 육군보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11공수특전여단과도 협약을 맺으며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육군보병학교는 총 1천200여 명의 소위 및 대위를 대상으로 부상 예방과 회복 전략에 대한 과학적 이론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선 부대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장교들의 현장 지휘 역량과 병력 관리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공수특전여단에는 약 100명의 특수전 장병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데이터를 분석해 과학

적 전투 체력 훈련 체계를 통한 특수전 임무 수행 능력 향상과 부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방부도 과학기술 기반 전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민·군 협력 모델은 스포츠과학을 활용해 군 장병의 전투 체력 향상과 부상 예방은 물론, 장기적인 전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과학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스포츠과학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광주가 보유한 스포츠



지난 6일 광주시스포츠과학센터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11공수특전여단 부대원이 전투 체력측정을 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과학 역량을 바탕으로 민·군 협력의 새로운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제15회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성료

전국 시각장애인볼링선수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15회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가 지난 7일 광주 동구 볼리스 볼링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광주시각장애인스포츠포럼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각장애인볼링협회와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250여명(선수 100명·임원 및 관계자 150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시각장애인볼링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정

식종목으로 3개의 세부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대회는 전맹장애인이 참여하는 TPBI(남·여)와 약시장애 정도에 따라 TPB2·TPB3(남·여) 등급 등 개인전과 통합등급 3인조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세상과 맞서 당당히 장애를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선수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도약과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